‘오리발’ 아베…등돌린 民心

국회 출석 ‘사학 스캔들’ 전면 부인…국민 77% “납득 못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본인이 연루된 ‘사학스캔들’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학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이 특혜며, 이 과정에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의뢰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내 친구와 관련된 일이라서 의혹의 눈이 (내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지금까지 답변에서는 그런 관점이 부족했다”며 “항상 정중하게 설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올들어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관련된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학원 문제가 증폭됐음에도 ‘일방적 의혹’이라고 일축하기만 했던 것에서는 다소 변화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학스캔들이 확산하며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급속하게 악화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실시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집권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측과의 대결에서 ‘역사적 참패’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최저 기록을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취임 이후 한때 70%를 넘나들던 그의 지지율은 사학스캔들 파문과 7·2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이후 30%로 급감한데 이어 최근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떨어졌다.

지지통신 조사(7월 7~10일)에서 언론사 여론조사 최초로 30%대가 붕괴한 29.9%를 기록한데 이어 마이니치신문 조사(7월 22~23일)에서는 한달 전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26%로 급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7월 21~23%)에서도 한달 전에 비해 10% 포인트 낮은 39%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사학스캔들 진상 규명을 위한 중·참의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향후 그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중대 기로로 받아들여진다.

일단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발언을 통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 77%(니혼게이자이신문)가 사학스캔들에 대한 “정부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나는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종전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여론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실언’ 트럼프…진땀 뺀 백악관

‘러시아 스캔들’ 셀프 사면 언급 논란…참모진 “논의된 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사면 언급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이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여론을 타진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셀프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몰리자 트럼프 대통령의 ‘실언’을 참모들이 또 뒷수습하는 양상이다.

백악관 참모들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은 현재 누구에 대해서도 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공보 참모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누구에 대한 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 문제는 터무니없는 일이므로 누구도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은 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로도 법률적으로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가세했다. 세큘로는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과 사면에 관해 대화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면은 논의된 적이 없고 대화 주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로 기밀 유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면을 고려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다만 세큘로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대통령 스스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면이 의제로 오르지 않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韓, 화해·치유재단이사장 사의에 日 당혹

“한국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일본 정부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한일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의 활동 그 자체가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약 10억엔(약 100억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일본 정부가 지출한 10억 엔을 기초로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며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 중 36명이 사업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매체들도 김 이사장의 사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일합의 핵심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재단이 활동을 종료할 경우 합의의 기둥(핵심)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러 발트해 합동훈련…서방 비난 봇물

중국의 최신예 함정이 원거리 항해 끝에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에 진입해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하는 ‘군사 굴기’에 서방의 비난이 빗발치는데 대해 중국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가 합동 훈련을 하는 호주 북동부 해역에 중국이 정보함을 보내 염탐한 것을 비판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확장해 남중국해는 물론 파키스탄 과다르항, 중동의 전략지역인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에 이어 러시아와 나토의 대결지역인 발트해에까지 최신예 군함을 보내는 데 서방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으나, 중국은 “무슨 큰 일이냐”는 반응이다.

중국 내에선 이번 훈련을 두고 내심 ‘대양 해군’의 면모를 갖췄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려는 기미도 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서방의 비판적인 시선에 맞서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서방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훈련과 ‘항행의 자유’를 앞세운 남중국해 군함 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2 뛰어난 간관 왕규

왕규(王珪, 571-639)는 태원기 출신으로 자는 숙개다. 태종 이세민에게 발탁되어 간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정관성세에 기여한 공으로 능연각 24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어려서 부친을 잃었다.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선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성격이 담백하고 재물이나 지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다. 당 건국 후 고조의 황태자 이건성의 막료가 되었다. 중사인에 임명되어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 626년 현무문의 정변으로 태자 건성과 황자 원길이 죽임을 당하고 이세민이 2대 황제가 되었다. 그는 건성의 참모인 위징과 왕규를 불러 “왜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시켰는가”라고 비난하였지만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받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기용했다. 이어서 황문시랑이 되고 태자우서사를 겸하였다.

627년 태종은 황문시랑 왕규와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반란을 꾀하다가 살해당한 여강왕의 측실이었던 여인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태종은 그녀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여강왕은 무도한 인간으로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 아내가 바로 이 여자다. 그야말로 폭악한 짓을 하였으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나면서 물었다. “폐하는 여강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이라 생각하십니까.” 황제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왜 나에게 그 시비를 묻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답하기를 “이 여성이 황제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강왕의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폐하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악을 악으로 간주했지만 악을 내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태종은 “그야말로 훌륭한 간언”이라고 감탄하고 그 여자를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왕규는 이처럼 명쾌히 사물의 본질을 찌르는 간언을 하였다.

정관 초 시중이 되어 방현령, 두여회, 위징, 온언박 등과 함께 국정을 주도했다. 특히 사람을 잘 판단해 좋은 인재를 여러명 추천했다. 628년 황제는 그에게 “수나라 말년에 50년에 해당하는 물자가 비축되었는데 수양제는 그 부유함을 믿고 사치심이 만족할 줄 몰라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 창고의 저장은 흉년을 대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재물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방현령, 두여회 등과 함께 재물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물자를 공급하도록 노력해 국가재정의 낭비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630년 황제는 여러 중신들과 연희를 열었는데 그에게 “경은 식견과 안목이 정통하고, 게다가 담론도 잘한다. 현령 이하를 경이 판단하고 자신은 그들에게 비해 어떠한지를 말해보라”고 하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부지런히 나라를 받들고, 아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면에서, 신은 방현령만 못합니다. 문무를 겸한 재능이 있어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되는 점에서, 신은 이정만 못합니다. 넓게 아뢰며 상세히 설명하고, 출납이 미더운 점은 온언박만 못합니다. 번거로움에 처하고 극심함을 다스리고, 많은 일을 완성하는 것은 대주만 못합니다. 간쟁을 자신의 업무로 하는 것에는 위징만 못합니다. 다만, 탁함을 막고 깨끗함을 장려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점에서는 신이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황제와 대신들이 그의 주장에 깊이 탄복했음은 물론이다.

촌철살인 간언…태종 각별한 총애

632년 근신들과의 연회에서 장손무기는 “왕규와 위징은 옛날에 원수여서 서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연회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종은 “위징과 왕규는 마음을 다해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쓰는 것이다.”라고 충성심을 높이 치하했다.

그는 한때 동주자사로 좌천되었으나 예부상서로서 예법과 학문, 과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639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의(懿)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태종이 그의 충성심을 기려 소복을 입고 오랫동안 애도했다고 한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경,공매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음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음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음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융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토지] 북구 삼각동 1종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10-6243-3704